

##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 비판적 읽기\*

이 영 훈  
(고려대)

### 1. 서론

국내에서 ‘자국화(domestication)’ 및 ‘이국화(foreignization)’라는 두 가지 번역 전략과 ‘번역 윤리’의 추구로 널리 알려진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2019년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이라는 저술을 출간한 바 있다. 베누티의 가장 최근 저술인 이 책의 표지에서 흡사 서양 고대 말기 교부학(patristics)의 논저를 연상시키는 본제는 번역과 관련된 논쟁임을 지시하는 부제와 묘한 상상력을 이루며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는 네브라스카 대학교 출판부가 발간하는 ‘도발 총서(Provocations Books)’의 일원이다. “세계는 사유를 도발한다. 사유는 이러한 도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일 뿐이다”는 총서 안내문(2019: ii)의 첫 대목을 통해, 본서를 읽으려면 우리는 도발에 반응하기 위해 비판적 사유로 무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게 된다.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그런데, 반대의 대상이 ‘instrumentalism’이라니. 주요 영한사전들에서 ‘도구주의’, ‘기구주의’, ‘개념 도구설’로 해석되는 이 용어는 비교적 낯설다 하겠다. 사실 본서를 처음 접했을 때, 논자에게는 이 개념이 번역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앙트완 베르만(Antoine Berman) 등이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논자로선 독서를 시작하면서 본서가 이러한 도구주의적 언어관과 필시 관계될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한편, 본서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을 마치기가 무섭게 마치 구약 성경의 십계명을 연상시키는 STOP과 START로 시작하는 10개의 명령문<sup>1)</sup>으로 독자들을 설 새 없이 ‘도발(provocation)’한 후, 베누티가 논쟁에서 겨냥하는 목표물이 ‘도구주의(instrumentalism)’라는 ‘번역 모델’임을 본문 제1장의 첫 문장

1) STOP treating translation as a metaphor. START considering it a material practice that is indivisibly linguistic and cultural.

STOP using moralistic terms like “faithful” and “unfaithful” to describe translation.

START defining it as the establishment of a variable equivalence to the source text.

STOP assuming that translation is mechanical substitution. START conceiving of it as an interpretation that demands writerly and intellectual sophistication.

STOP evaluating translations merely by comparing them to the source text. START examining their relations to the hierarchy of values, beliefs, and representations in the receiving culture.

STOP asserting that any text is untranslatable. START realizing that every text is translatable because every text can be interpreted. (ix-x)

번역을 은유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라. 번역을 언어적이면서 동시에 문화적인 물질적 실천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라.

번역을 기술하기 위해 ‘충실한’, ‘불충실한’과 같은 도덕적 표현을 사용하기를 멈춰라.

번역을 원천 텍스트에 대한 가변적 등가의 설정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라.

번역을 기계적 대체로 상정하기를 멈춰라. 번역을 글쓰기 상의 그리고 지적인 세련됨을 요구하는 해석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라.

번역물들을 단순히 원문들과 비교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을 멈춰라. 번역물들을 도착 문화 내에서의 가치, 믿음, 재현들의 위계와 관련지어 검토하기 시작하라.

어떤 텍스트든 번역 불가능하다고 상정하길 멈춰라. 어떠한 텍스트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라. (한국어 번역은 논자의 것임)

부터 선언하고 있다. 원천 텍스트(source text)에 포함되거나 원천 텍스트가 야기한 불변소(invariant), 즉 불변의 형식, 의미, 효과를 복제 또는 이전하는 것을 번역으로 간주하는 ‘도구주의 모델’은 2000년 이상 곳곳에서 번역 이론과 주해를 지배해왔으며, 그 결과 번역 실무가 학술적·문학적 보상체계 내에서 낮은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번역 연구가 빈약하고 환원적이고, 고지식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이론적 개념들과 실천 전략들에 의해 ‘해석학적(hermeneutic)’ 번역 모델이라는 대안이 사전 봉쇄되는 부정적 상황들이 초래되었다(2019: 1)는 것이다. 더구나, 이 책의 말미에서 베누티는 “도구주의는 원문의 불변소를 복제하거나 이전해야만 할 때 번역이 감염시키고 꾸며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속임수(hoax)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2019: 172, 밑줄 표기는 논자의 것임)는 여전히 도발적인 권유를 내세워 우리의 ‘욕망’<sup>2)</sup>을 마지막까지 강하게 자극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서두에서부터 말미까지 상당히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진술들로 점철된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이하 *CI*)을 논자는 ‘도발’이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번역학에서 ‘도구주의(instrumentalism)’가 무엇인지를 이 술어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여, 철학 및 여타 인문학 내의 도구주의에 대한 기존 담론과 번역학 내 도구주의를 둘러싼 논란 등을 연이어 검토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서 후반부에서는 베누티의 본 2019년 저작을 2013년(“Introduction”, in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 1-10)부터 본격화된 그의 이론의 급격한 변신의 결과로 간주하여, 베누티의 변신의 실체와 전후 양상, 변신의 구체적 경과, 변신 과정의 내재적·외재적 모순 등을 분석해내고, 이를 통해 *CI*로 귀착된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이 궁극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과 그 부정적 영향을 밝혀보려고 한다.

2) 본서의 마지막 문장이 바로 “당신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가(Where is your desire)?” (2019: 177)이다.

## 2. 도구주의란 무엇인가?

### 2.1 도구주의의 정의

현재 가장 방대한 영어 사전인 *Oxford English Dictionary* 온라인판에는 ‘도구주의’, 즉 영어 어휘 *instrumentalism*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즉, 음악과 철학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술어로, 음악에서는 기악 기술이나 기악법을 지시한다. 반면, 철학에서는 먼저 존 듀이(John Dewey)가 발전시킨 실용주의 이론으로 사유, 탐구, 지식이 무엇보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주장을 가리키거나 듀이의 철학 전체를 뜻하며, 오늘날은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다. 다음으로, 주로 철학 분야에서 실용적 목적을 위해 활동, 방법, 이론, 혹은 학문을 거의 또는 오로지 기구나 도구로만 간주하는 다양한 관점들을 말한다. 따라서 *CI*를 통해 베누티가 겨냥하는 바는 아무래도 음악적 의미보다는 철학적 두 의미 중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04년 *instrumentalism*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듀이에게 이 술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물론, 베누티가 *CI*를 비롯한 어느 저작에서도 *instrumentalism*과 관련하여 듀이의 이름과 주장을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베누티가 공격하는 ‘도구주의’의 함의를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듀이의 정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thesis of the essays is that thinking is instrumental to a control of the environment, a control effected through acts which would not be undertaken without the prior resolution of a complex situation into assured elements and an accompanying projection of possibilities—without, that is to say, thinking.

Such an instrumentalism seems to analytic realism but a variant of idealism. (Dewey 1916: 30)

이 글들에 담긴 주장은 사유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복잡한 상황을 확실한 요소들로 사전에 분해하는 일과 부수적으로 가능성들을 투사하는 일 없이는, 다시 말해서 사유 없이는 수행되지 않을 행위들을 통해

통제가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구주의는 분석적 실재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관념론의 한 변이이다. (한국어 번역과 밑줄 표기는 논자의 것임)

듀이의 정의를 요약하자면, 도구주의는 관념론의 한 변이로서 “사유가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이다. 한편, 오늘날 철학자들은 인식론과 과학 철학 분야에서 듀이에게서 비롯된 도구주의를 ‘실재주의(realism)’ 및 ‘본질주의(essentialism)’와 대립되는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막스 베버(Max Weber)로부터 프랑크푸르트 학파(Frankfurt School)<sup>3)</sup>, 프랑스와 리오타르(François Lyotard)에 이르기까지 도구주의를 서구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현대적 합리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sup>4)</sup>로 간주하고 도구적 이성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이어왔다.

## 2.2 번역학에서 도구주의란?

오늘날 ‘도구적(instrumental)’이란 수식어가 번역학자들에게 익숙해진 것은 독일에서 스키포스(Skopos) 이론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크리스티아네 노르트(Christiane Nord)가 1989년 제시한 기록적 번역(Dokumentarische Übersetzung) 대(對) 도구적 번역(Instrumentelle Übersetzung)의 이분법(1989: 102-104) 덕분이다. 노르트에 의하면, “도구적 번역(instrumental translation)은 출발 텍스트의 저자로부터 도착 텍스트의 수신자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유한

- 
- 3)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와 아도르노(Adorno)는 문화이자, 이와 양립 가능한 합리성의 한 형식으로서 현대성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입장은 합리성을 자기 보존 및 자연의 사물화에 의해 추동되는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eason)으로 규정하였다. 특히나 호르크하이머에게 도구적 이성은 계몽주의에 대한 환멸과 자연을 장악하려는 기술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어, 자본주의 사회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Yates 2019: 198, 한국어 번역은 논자의 것임)
- 4) “도구주의는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주된 이념적 토대였으며, 막스 베버로부터 프랑스와 리오타르에 이르기까지 (...) 강력한 비판들의 초점이 되어 왔다. 오래된 혹은 가까운 과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식은 특별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tool)’로 간주되었다...” (Hamilakis 2004: 290, 한국어 번역은 논자의 것임)

의사소통 도구이며, 도구적 번역은 출발 텍스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2005: 80, 밑줄 표기는 논자의 것임)고 한다.

그런데 사실, 베누티가 제시하는 도구주의 모델과 해석학적 모델의 이분법은 번역사 연구자인 루이스 켈리(Louis G. Kelly)가 1979년 처음 제안한 것이다(1979: 7-67). 켈리는 언어를 도구(instrument)로 보느냐 또는 로고스(Λόγος), 즉 창조적 실체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서구의 언어 이론들을 언어학자들의 모델과 철학자, 신학자 및 문학가들의 모델로 이원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을 전달(transmission)로 보는 관점과 창조(creation)로 보는 관점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언어 및 번역을 둘러싼 각각의 두 관점들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켈리에게 도구적 모델은 언어를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번역을 전달로 보는 접근법인 셈이다. 또한 도구적 모델은 언어학자들과 그들의 언어 이론에 근거한 실용적 번역 이론들에 해당되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Augustinus)의 『기독교 교양(De doctrina christiana)』에서 처음 발견된다고 한다.<sup>5)</sup>

### 2.3 번역학 내에서의 도구주의 비판

한편, 번역학에서 도구적 언어관, 도구주의, 도구적 사유, 번역의 도구화는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번역학 내에서 도구주의에 관한 주요 비판들의 예시이다.

먼저, 베누티는 자신의 1995년 저서 *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영어권 번역에서 만연한 투명성의 논리가 순전히 도구적인 언어관을 조장하고, 즉각적 이해와 허위의 사실성을 강조하게 만든다고 맹렬히 비판(1995: 5)한 후, 1998년 단행본 *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서는 자신의 번역 이론과 실천이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간주하는 언어학-정향의 접근들(linguistics-oriented approaches)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끌었음을 시사하였다(1998: 21). 또한, 앙리 메쇼닉(Henri Meschonnic)은 2007년 저술 *É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에서 비기독교도의 개종을 위해 성경을 비기독교도의 표준어나 평상어로 옮김으로써

5) 아우구스티누스의 도구주의 번역 모델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위해서는 더글라스 로빈슨(Douglas Robinson)의 ‘Instrumentalism’(1991: 50-54)을 참고하시오.

성경에 담긴 시적 특성을 파괴하는 것을 도구주의라고 비판하였다(2007: 32). 한편, 딜렉 디즈다르(Dilek Dizdar)는 2014년 논문 'Instrumental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에서 지식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번역 연구 및 교육 분야에 지식 생산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는 유럽 번역학계의 도구적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2014: 209-210). 다른 한편, 룩 판 도어슬라어(Luc van Doorslaer)는 2018년 발간된 단행본 내 논문 'Bound to Expand: The Paradigm of Change in Translation Studies'에서 기계번역의 발전에 따라 번역가들을 도구의 일부이자 조만간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번역의 도구화가 번역에 대한 주된 관점이 될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2018: 224).

### 3. 베누티의 *Contra Instrumentalism* 비판적 읽기

#### 3.1 베누티의 도발과 변신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누티의 2019년 저술 *CI*에는 학술 서적으로선 이례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언사들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도발은 베누티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도구주의'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구주의'에 대한 베누티의 공개적 도발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CI*에 대한 서평을 게재한 마체이 리트윈(Maciej Litwin)에 따르면, 베누티가 2012년 뉴욕에서 열린 나이다 번역학 공개 강좌(Nida School of Translation Studies)에서 “도구주의를 제거하는 것(killing off instrumentalism)”이 자신의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2020: 209). 이처럼 신랄한 언사는 이후에도 이어져, “도구주의는 한마디로 번역에 대해 통찰력 있고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없는 거짓(falsehood)”(2013: 3)이라던가, 도구주의가 주장하는 “불변소는 속임수(hoax)”(2017: 25)라는 표현이 베누티의 저작에서 연이어 발견되며, *World Literature Studies* 2022년 1호에 실린 지상 대담에서도 그는 “도구주의는 속임수(hoax)이고, 불변소는 존재하지 않는다”(Bassnett et al. 2022: 11)는 독설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 같은 도발의 배경에 2013년에 발간된 베누티의 기존 논문 모음

집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이하 TCE)의 서문(1-10)에서 선포된 그의 이론적 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베누티의 변신은 무엇보다 서문 내에서 ‘도구주의 포기하기(Abandoning instrumentalism)’와 ‘새로운 접근 방식 시험하기(Essaying a new approach)’라는 하위 두 장(章)의 제목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베누티는 논문집에 포함된 일련의 글들이 “자신의 사유에서 중요한 변화”(2013: 2)를 반영한다고 고백한 후, 해당 논문들을 시간적 순서로 따라가다 보면 한편으로 도구주의에서 벗어나 해석학적 번역 모델로, 잔여태(殘餘態, remainder)<sup>6)</sup>의 포기, 기입(inscription)과 해석체(interpretant) 개념의 채택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다른 한편으로 원천 텍스트를 도착 문화에서 혁신의 윤리(ethics of innovation)가 만들어지는 토대로 삼으려는 존중의 윤리(ethics of respect)의 재고(再考), 이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 그의 ‘지적 여정(intellectual trajectory)’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하였다(2013: 8).

### 3.2 변신의 실체와 전후 양상

이제 베누티가 천명한 이론적 변신의 실체와 그 전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은 먼저 자신이 계승해 온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와 베르만으로 이어지는 사유의 전통을 부정한다는 고백에서 확인된다. 즉, 두 사람의 이론은 겉으로는 번역을 하나의 해석으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번역을 원천 텍스트에 포함되거나 그 에 의해 유발된 불변적 형식, 의미, 효과를 복제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번역 모델에 불편하게 의지한다는 점을 이제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013: 3). 다음으로, 이전보다 — 그리고 쉐라이어마허나 베르만보다 — 훨씬 엄밀하게 해석학적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그의 변신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구축하려는 해석학적 번역

6) 우리가 잔여태로 옮긴 ‘remainder’라는 술어를 베누티는 1995년도 저서 *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베누티는 이것을 프랑스의 언어학자 장-자크 르세르클(Jean-Jacques Lecercle)의 저술 *The Violence of Language*에서 빌려왔는데, 그는 이 개념을 “의사소통과 지시(reference)에 맞게 설계된 투명한 언어 사용 방식들을 넘어서서 다양한 정도의 폭력을 통해 의사소통과 지시를 사실상 방해할 수도 있는 것”(1995: 216)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델은 번역을 하나의 해석 행위(interpretive act), 즉 여러 해석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를 기입(inscription)하는 일로 바라보며, 원천 텍스트가 — 장르나 텍스트 유형과 상관없이 — 형식, 의미, 효과 면에서 근본적으로 ‘가변적(variable)’이라고 상정한다(2013: 4)는 점에서 술라이어마허나 베르만의 이론과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비록 베누티가 2013년에 이론적 변신을 공식 선언하였지만, 우리는 그의 사유가 변화를 경험하는 변곡점을 2010년으로 꼽는다. 그 근거는 다음 장에서 밝히기로 하고, 이제부터 베누티가 이론적 변신을 시도하기 이전의 양상을 그의 2013년 논문 모음집 서문(2-4)을 바탕으로 기술해 보겠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베누티의 이론적 접근에서 핵심은 술라이어마허의 번역 방법 개념과 이를 개선한 베르만의 번역 윤리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베누티의 번역 윤리는 수용 문화에서 언어적·문화적 가치들의 서열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낯설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두 가지 이화(異化, foreignizing)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 도착 문화에서 이미 번역된 원천 문학의 정전과 어긋나는 출발 텍스트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반드시 출발 텍스트에 가깝게 유착하지 않고 이기니오 우고 타르케티(Iginio Ugo Tarchetti)나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처럼 실험 정신을 북돋는 번역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베누티는 번역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두 가지 구체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즉, 낯설게 하는 잔여태(remainder)를 도착 텍스트 내에 배출하기 위해 표준 어법에 혁신적 변이를 유도하거나 비표준적 요소들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화(minoritizing)’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실험적 번역 전략을 사용하는 일이었다. 물론, 베누티의 의도는 ‘유려한 번역(fluent translating)’ 방식을 포기하기보다는 어휘나 통사를 넘어서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도착 사회의 독자들을 낯설게 하는 실천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들을 관장하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들을 축소시키지 않는 ‘인본주의 번역(humanistic translation)’의 정의 그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한편, 2010년대 이후, 즉 베누티가 이론적 변신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후, 그의 이론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는 우선 ‘잔여태’를 새로운 맥락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번역은 하나의 해석을 기

입하기 위해 일련의 형식적·주제적 해석체들(formal and thematic interpretants)을 적용함으로써 출발 텍스트를 도착 언어와 문화 내에 재맥락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기입(inscription)’ 개념을 이어받아, 출발 텍스트가 항상 이미 해석된 채로 번역 과정에 유입될 뿐만 아니라 도착 문화에서 번역됨으로써 추가적이고 아마도 이질적인 해석의 기입을 경험하게 된다고 상정하게 된다. 더불어, 찰스 퍼스(Charles Peirce)의 ‘해석체(interpretant)’ 개념을 수용하여, 원천 텍스트를 번역 텍스트로 전환하면서 해석의 기입을 수행하는 형식적·주제적 매개자들(mediators)을 적용하는 것을 번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입’과 ‘해석체’ 개념은 베누티의 해석학적 모델에서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 그의 이러한 해석학적 모델은 하이데거와 한스-게오르크 가다머(Hans-Georg Gadamer)로 대표되는 독일의 해석학적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이는, 그에 따르면, 독일 해석학의 전통이 출발 텍스트 내에 숨겨진 본질주의적 의미(essentialist meaning)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인데, 베누티의 새로운 입장은 출발 문화가 가진 차별성의 불가피한 손실뿐만 아니라 도착 문화에서 생기는 과도한 순의조차도 창조적 번역 가능성들을 드러내는 상쇄(trade-off) 현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었다. 끝으로, 그는 번역 윤리를 재공식화하기 위해, 알랭 바디우(Alain Badiou)의 ‘사건(event)’ 개념에 눈을 돌려, 도착 문화에 결여된 지점을 지목하여 기성의 문화적·사회적 제도들과 단절하는 혁신적 형식 또는 실천의 부상으로 번역 사건을 정의하였다.

### 3.3 변신의 구체적 경과

우리는 이제부터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을 ‘도구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2013년에 그는 ‘도구주의 포기하기’(2013: 2)라는 선언적 구호로 자신의 입장 변화를 규정하였지만, 그의 전체 저작들을 검토해보면 도구주의에 대한 그의 시각은 보다 미묘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베누티의 도구주의에 대한 언급은 영어권 번역에서 투명성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조장하는 도구적 언어관에 대한 비판(1995: 5)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그가 2000년에 편찬한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이하

TSR) 초판에서 켈리가 사용한 '도구적 언어 이론'과 '해석학적 언어 이론'의 2분법이 처음 도입(2000: 5)되어 다양한 번역 이론 텍스트들과 경향들을 기술하고 구분하기 위한 발견 장치들(heuristic devices)로 사용되었고(2000: 6), 2004년 선집의 2판까지 이 구분은 유지되었다. 한편, 1995년 저서에서와는 달리, 이 두 선집에서 그는 번역 이론들의 도구적 언어관에 대한 비판은 삼가하였다. 다른 한편, 켈리가 도구적 언어관과 해석학적 언어관의 구분에서 출발하여 도구적 번역 이론과 해석학적 번역 이론을 구분했음에도 2000년과 2004년 선집에는 오로지 해석학적 번역 이론에 대한 언급들만 있을 뿐이다.

베누티가 켈리의 2원적 구분을 번역 이론들에 처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으로 확인된다. 문학 작품의 영화 각색(film adaptation) 연구에서 번역 이론의 유용성을 주장한 논문 'Adaptation, Translation, Critique'에서, 그는 각색 연구 내 이론적 담론들이 소통적(communicative) 모델 대(對) 해석학적(hermeneutic) 모델로 양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켈리의 2원적 언어관에서 출발한 두 가지 번역 이론들의 구분으로 이 같은 대립을 대체하는 한편 원작과 각색의 관계를 해석학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다(2007: 28). 이어서, 2009년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발표된 논문 'Traduction, empirisme, éthique'에서, 그는 실천을 이론보다 우위에 놓는 실무 번역가들의 경험주의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해석학적 모델과 소통적 모델의 구분을 2007년 논문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여기서도 그는, 실무 번역가들의 경험주의가 언어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을 조장하여 소통적 번역 이론으로 이끌기 때문에, 소통적 모델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더라도 번역을 해석으로 이론화하는 해석학적 모델을 통해 번역을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09: 77-78).

한편, 베누티의 2009년 프랑스어 논문은 축약되어 2010년에 'Translation, Empiricism, Ethics'라는 영어 논문으로 재발간되는데, 여기서 '소통적 모델(modèle communicatif)'이 '도구적 번역 모델(instrumental model of translation)'로 명칭이 바뀌고, 도구주의(instrumentalism)를 비판하면서 이를 반드시 해석학적 사유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등장함(2010a: 74)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이 같은 변화가 베누티의 이론적 변곡점을 알리는 지표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2010년 이전과 그 이후로 그의 이론적 입장이 전반적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베누티가 ‘도구주의의 포기’를 천명한 2013년 저작 *TCE*와 도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이 가장 첨예화된 2019년 저작 *CI*에서 도구주의에 대한 그의 관점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먼저, *TCE*에서 도구주의 번역은, 베누티에 따르면, 원천 텍스트 안에 들어 있거나 원천 텍스트에 의해 초래된 형식, 의미, 효과로서의 불변소를 복제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다. 특히, 술라이어마허와 베르만에게는 원천 텍스트의 낯섦(*foreignness*)이 어휘와 통사, 문체와 장르, 테마와 담론 안에 내재한 불변소이며, 이 낯섦을 앞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텍스트 자질들에 가까이 밀착함으로써 번역가가 반드시 복제하거나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베누티가 볼 때, 두 사람의 도구주의는 히에로니무스 성인(Hieronymus)이나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사유와 다르면서도 의외로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술라이어마허와 베르만의 이론은 원천 텍스트에 내재하거나 또는 이 텍스트에 의해 산출되며 시공의 제약 없이 번역가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불변의 본질을 상정하기 때문에, 번역가가 제공하는 것을 원천 텍스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 대한 매개되지 않은 접근으로 간주하며, 번역이 원천 텍스트에 기입하는 변형적 차이(*transformative difference*)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CI*에 와서 도구주의는 여전히, 베누티의 관점에서 볼 때, 번역을 원천 텍스트 안에 담겨 있거나 이 텍스트에 의해 야기된 불변적 형식, 의미 또는 효과를 복제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구상하며, 번역이 원천 텍스트에 대한 직접적 혹은 비매개적(*unmediated*)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단어 대(對) 단어, 의미 대(對) 의미와 같은 도구주의적 이분법은 형식과 의미가 적극적인 해석 없이 즉각적으로 번역가에게 접근을 허용한다고 상정함으로써 단어, 구절, 혹은 문장 차원에 형식적·의미적 불변소가 소재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원천 텍스트의 자질들이 보존되거나 상실된다는 식의 언급, 해석 또는 번역과 관련하여 진리나 정확성을 논하는 일, 번역을 옷 갈아입기, 초상화 그리기, 윤회, 환생, 혹은 성변화(聖變化, *transubstantiation*)<sup>7)</sup>

7) “성변화(聖變化, 영어: *transubstantiation*, 화체설)는 기독교의 신학용어 중 하나로,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성찬에서 밀빵과 포도주가 각기 예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일 또는 그러한 믿음을 가리킨다.” (성변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에 비유하는 것, 이 모두가 불변의 자질들의 존재, 이들에 대한 비매개적 접근, 원천 텍스트적 본질의 온전한 전달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도구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베누티는 경고한다. 끝으로, 번역 가능성이나 번역 불가능성의 주장들도, 그가 이해하기에는, 불변소의 상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도구주의 담론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TCE에서 CI로 오면서 베누티에 의해 도구주의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함의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베누티의 지적 여정 속에서 도구주의와 관련된 명칭과 개념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누티는 1979년 켈리가 제안한 도구적 언어관과 해석학적 언어관의 구분을 2000년 제1판 TSR에 처음 도입한 후 2007년과 2009년 논문들에서 이를 소통적 번역 모델과 해석학적 번역 모델 간의 대립 관계로 변모시켰고, 다시 2010년부터는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도구적 번역 모델 대(對) 해석학적 번역 모델의 2분법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TSR 제3판(2012)부터 최신의 제4판(2021)까지 그는 켈리의 언어 이론 2분법을 경험론적(empiricist) 언어 이론 대(對) 유물론적(materialist) 언어 이론으로 새로이 명명하는 한편, 기존의 도구적 번역 이론과 해석학적 번역 이론의 구분을 TSR 내 다양한 이론적 텍스트들과 경향들을 기술하기 위한 분석 도구들(analytical tools)로 사용<sup>8)</sup>하고 있다.

다른 한편, 켈리는 서구의 언어관과 번역이론에서 도구적 접근과 해석학적 접근을 ‘상호 보완적인(complementary)’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베누티는 2010년에 발간된 논문 ‘Ekphrasis, Translation, Critique’에서 두 접근 방식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못하며, 따라서 두 방식은 ‘상호 배제적(mutually exclusive)’이며, ‘이원적 대립(binary opposition)’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2010b: 151). 또한, 그는 도구적 언어 개념을 TSR 초판에서는 “사유와 의미를 표현하는 의사소통”(2000: 5)으로 규정하는 시각으로 설명하였다면, 제3판에 와서는 경험론적 언어 개념을 “사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현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

8) 도구적 및 해석학적 언어관은 이들과 연관된 철학 담론들에 따라 ‘경험론적’ 및 ‘유물론적’ 언어관으로 재명명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고, ‘도구적’ 및 ‘해석학적’이라는 수식어는 각각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한 번역 패러다임이나 모델에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베누티는 설명하였다(2012: 5-6).

는”(2012: 6) 입장으로 치부하였다.

### 3.4 변신 과정의 모순들

베누티는 CI에서 도구주의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여러 번역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의거하여 각 번역학 담론들이 갖는 내재적·외재적 모순들을 지적하였다(2019: 11-16). 푸코(1970: 153)에 따르면, 담화적 형성물(discursive formation)은 동일한 ‘에피스테메(episteme)’<sup>9)</sup>에 근거한 ‘내재적 대립들 혹은 모순들’이 상존하는 다양한 알력의 공간이며, 또한 각기 상이한 에피스테메를 기반으로 하는 별개의 담화적 형성물들 간의 대립을 반영하는 ‘외재적 모순들’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한다(2019: 11-12). 우리도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을 검토하면서 변신 과정에서 그의 담론이 봉착한 몇 가지 내재적·외재적 모순들을 차례차례 찾아내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재적 모순들이 잠재되어 있다. 첫째, 비판 대상인 다른 번역학자들의 언어관에 대한 그의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1995년 저서 *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서 언어의 순전히 도구적 사용만을 강조하는 투명성의 논리가 영어권 번역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1995: 5)하였고, 1998년 저서 *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서는 언어를 개인이 규칙 체계에 따라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간주하는 언어학-정향적 접근들(linguistics-oriented approaches)에 문제를 제기(1998: 21)하였으나, TSR의 제1판(2000)과 제2판(2004)에서는 도구적 언어관과 해석학적 언어관을 나란히 중립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제3판(2012)과 제4판(2021)에서는 유물론적 언어관에서 출발한 해석학적 번역 모델을 우선시하고 도구적 번역 모델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그 바탕이 되는 경험론적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삼가고 있다. 더구나 2010년 초부터 도구주의의 포기 와 해석학적 번역 모델의 고수라는 이론적 변신이 시작된 이후에도 모든 비판이 도구주의 번역 모델에 할애되었을 뿐, 경험론적 언어관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그의 논문이나 저서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둘째, TSR의 판이 거듭될수록 번역학자들과 그들의 이론들에 대한 범주화

9) 한 시대의 지적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1판(2000)과 제2판(2004)의 색인에는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의 텍스트가 '해석학적 번역 이론'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제3판(2012)과 제4판(2021)에서는 스타이너의 텍스트가 여전히 선집에 실려 있음에도 그의 이론은 '해석학적 번역 이론' 항목 분류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베르만의 이론은 베누티의 변신 이후 2013년 *TCE*와 2019년 *CI*에서 모두 도구주의에 사로잡힌 것으로 우선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TSR*의 모든 판에서 '해석학적 번역 이론' 항목에 계속 포함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제4판(2021)에서 술라이어미허와 기대온 투리(Gideon Toury)의 텍스트는 '해석학적 번역 모델'과 '도구주의 번역 모델'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색인화되었다.

셋째, 해석학적 번역모델의 핵심 요소인 '기입(*inscription*)'과 '해석체(*interpretant*)'의 개념이 베누티의 변신 과정에서 변형되었음을 그의 저작들을 통시적으로 검토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베누티가 사용한 '기입'은 2000년 초까지 그 대상이 도착사회의 '언어·문화적 가치들' 또는 '도착 사회의 이해 가능성과 이해관계'였다가, 2010년 초부터 데리다의 이론을 근거로 삼아 '해석' 또는 '해석적 가능성'으로 기입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 또한, '해석체'는 베누티의 *TSR* 초판(2000)에서 '정확성의 기준이자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코드'의 의미로 처음 등장하여, 2000년대에는 등가 관계를 나타내는 '형식적 해석체'와 코드와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주제적 해석체'의 2항 구조로 이해되었으나, *TCE*(2013)부터는 퍼스의 개념을 원용하여 '기입'을 실행하는 형식적·주제적 중재요소들(*mediators*)로 그 정의가 변경되었다.

이어서,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 과정에서 발견되는 외재적 모순, 즉 베누티의 담화와 외적 담화들 사이의 충돌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첫째, '도구주의(*instrumentalism*)'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베누티의 정의는 "무엇이 도구인지?", "무엇을 위한 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이 용어의 사전적 정의와 어긋남은 물론, '도구주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듀이의 정의나 기존 철학 및 여타 인문학 분야에서의 논의와도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베누티는 *CI*에서 "도구주의 모델은 깊이 뿌리박혀 있고, 여전히 사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내가 여기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제시된 적이 없다"(2019: 16)고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메쇼닉

(2007), 디즈다르(2014), 도어슬라이(2018) 등의 도구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도구주의 비판은 서구 번역학계의 전반적 논의 방향과 충돌하고 있다.

셋째,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과 로즈마리 아로호(Rosemary Arrojo)가 중심이 되어 학술지 *Target*에서 전개한 ‘번역학 내 공통의 토양(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논쟁과 2017년 브라이언 모습(Brian Mossop)이 학술지 *Translation Studies*에서 제기한 ‘불변적 정향(invariance orientation)’ 논쟁이 모두 출발 텍스트 내 ‘의미 불변소’의 존재와 도착 텍스트로의 온전한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누티는 원천 텍스트 내 ‘형식 불변소’를 상징하는 입장을 도구주의로 비판하여 학계의 연구 동향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 4.1 베누티의 변신은 무죄?

우리는 베누티의 도구주의 비판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도구주의가 원천 텍스트의 형식, 의미, 효과를 불변소로 상징한다고 비판하며, 해석학적 번역 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텍스트 자질들은 번역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 즉 원문 차원에서 가변적이며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문의 비가시적 요소들인 의미나 효과를 가변적이고,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문 내 가시적인 요소들인 형식, 즉 텍스트 자체, 인쇄 및 디지털 매체상으로 보여지는 방식 또한 가변적이며 해석의 대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이 바로 베누티의 도구주의 비판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 왜 도구주의 이론이 원천 텍스트 내에 불변소들의 존재를 상징함으로써 이 불변소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비매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믿는 셈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결과적으로 원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



능성을 어떻게 봉쇄하게 되는지 베누티의 도구주의 비판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다.

셋째, 번역 실무가 학술적·문학적 보상체계 내에서 낮은 위치를 점하게 되고, 번역 연구가 빈약하고 환원적이며, 고지식하게 되는 등 이러한 부정적 결과들이 도구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베누티의 주장에 결여되어 있다.

넷째, 해석으로서의 번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도착 사회의 '해석체들'은 매 순간 번역가들이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불변소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른 가변적 요소인지 그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베누티의 도구주의 비판이 초래할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베누티는 본인이 비판하는 번역 이론들에 마치 누구나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도구주의의 '불변소'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단호하게 주장하여 자신의 비판 자체가 역으로 도구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반박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본다.

둘째, 베누티에 의해 도구주의자로 몰린 번역 이론가들이 번역에 대한 전반적 각성을 위해 그가 제시한 열 가지 촉구(2019: ix-x)에 대부분 공감할 수 있음에도 베누티의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비판으로 인해 그의 제안에 폭넓게 동참하게 될 지 회의적이다.

셋째, 하이데거, 가다머, 데리다 등 서구의 철학적 해석학 이론들에 텍스트 내 '불변소'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이 이론들을 도구주의라 폄하하고, 베누티 자신과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나의 해석이자 변형으로 인정하는 술라이어마허와 베르만을 도구주의자라 간주함으로써 그의 '해석학적 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도구주의 번역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해석학적 번역 모델을 제안하면서, 번역가가 원문에 대해 기입하는 해석의 타당성이나 검증 가능성에 대한 기준 제시가 결여되어 있어 해석의 윤리와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다.

## 4.2 향후 연구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베누티의 이론적 변신과 도구주의 비판을 큰 틀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과 부정적 영향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조망적 연구가 보다 세밀한 후속 연구들로 이어져야만 도구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고, 베누티의 제안들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서 몇 가지 세부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베누티의 행로와 파동’을 주제로 그의 번역 이론이 걸어온 길을 역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론적 동요와 파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기에는 그의 이론적 지주 중 한 명이었으나, 2010년대 이후 그에 의해 도구주의자로 몰린 베르만을 베누티가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베누티의 저술에 나타난 베르만에 대한 언급과 암시를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끝으로, 베르만에게서도 사후에 발간된 1994년 저술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에서 해석학적 전환이 관찰된다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베르만과 베누티의 해석학적 전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재원 (2019) 「언어는 ‘정말’ 도구 organum인가? – 플라톤/빌리, 하만, 훔볼트, 쇼쉬르, 벤야민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74: 139-163.
- Arrojo, Rosemary and Andrew Chesterman (2002)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Concluding the Debate’, *Target* 14(1): 137-143.
- Bassnett, Susan, Lawrence Venuti, Jan Pedersen and Ivana Hostová (2022) ‘Translation and Creativity in the 21st Century (Roundtable)’, *World Literature Studies* 14(1): 3-17.
- Berman, Antoine (1994)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s: John Donne* [번역 비평을 위하여: 존 던], Paris: Gallimard.
- Berman, Antoine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ntain* [번

역과 문자 또는 낯선 것의 거처], Paris: Seuil.

- Bernstein, Jay M. (2019) 'The Idea of Instrumental Reason', in Peter E. Gordon, Espen Hammer and Axel Honneth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Frankfurt School*,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18.
- Bühler, Axel (2003) 'Translation as Interpretation', in Alessandra Riccardi (ed.) *Translation Studies: Perspectives on an Emerging Discipline*, Cambridge: Cambridge UP, 56-74.
- Carr, Philip (1997) 'Instrumentalism', in Peter V. Lamarque (ed.) *Concise Encyclopedia of Philosophy of Language*, Oxford: Pergamon, 24-25.
- Chesterman, Andrew and Rosemary Arrojo (2000)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12(1): 151-160.
- Constantine, Peter (2017) 'Translating Full Throttle: A Conversation with Lawrence Venuti', *World Literature Today* 91(6): 23-26.
- Dewey, John (1916)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 Dizdar, Dilek (2014) 'Instrumental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Target* 26(2): 206-223.
- Foran, Lisa (2020) 'Where Is Your Desire?', *Provocations* 4: 17-27.
- Foucault, Michel (1970)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Random House.
- Gile, Daniel, Roger T. Bell, Brian Mossop, Edwin Gentzler and Miriam Shlesinger (2001)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Continuing the Debate', *Target* 13(1): 149-168.
- Hamilakis, Yannis (2004) 'Archaeology and the Politics of Pedagogy', *World Archaeology* 36(2): 287-309.
- Kelly, Louis G. (1979) *The True Interpreter: A History of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West*, New York: St. Martin's Press.
- Lecerle, Jean-Jacques (1990) *The Violence of Langua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itwin, Maciej (2020) 'Review: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by Lawrence Venuti', *The Translator* 26(2): 209-216.
- Meschonnic, Henri (2007) *Éthique et politique du traduire* [번역학의 윤리와 정치], Lagrasse: Verdier.
- Mossop, Brian, Anthony Pym, Federica Scarpa and David Katan (2017) 'Invariance Orientation: Identifying an Object for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Studies* 10(3): 329-356.
- Neubert, Albrecht, Sonja Tirkkonen-Condit, Jukka Mäkisalo, Riitta Jääskeläinen, Mirja Kalasniemi, Pekka Kujamäki, Erich Steiner and Marilyn Gaddis Rose (2001)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A Third Series of Responses', *Target* 13(2): 333-350.
- Nord, Christiane (1989) 'Loyalität statt Treue: Vorschläge zu einer funktionalen Übersetzungstypologie [충실성보다는 성실성: 기능적 번역 유형론을 위한 제안들]', *Lebende Sprachen* 34(3): 100-105.
- Nord, Christiane (2005)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second edition, Amsterdam and New York: Rodopi.
- Norris, Christopher (2015) 'Event', in Steven Corcoran (ed.) *The Badiou Dictionary*, Edinburgh: Edinburgh UP, 115-120.
- Pym, Anthony, Daniel Simeoni, Kirsten Malmkjær, Rakefet Sela-Sheffy and Sandra Halverson (2000) 'Shared Ground in Translation Studies: A First Series of Responses', *Target* 12(2): 333-362.
- Robinson, Douglas (1991) 'Instrumentalism', in Douglas Robinson (ed.) *The Translator's Tur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P, 50-54.
- Schecter, Darrow (2010) *The Critique of Instrumental Reason from Weber to Habermas*, New York: Continuum.
- Schleiermacher, Friedrich (1999)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et autre texte* [번역학의 다양한 방법들과 기타 텍스트], Paris: Seuil.
- Smulewicz-Zucker, Gregory (2017) 'The Frankfurt School and the Critique of Instrumental Reason', in Michael J. Thompson (ed.) *The Palgrave*

- Handbook of Critical The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85-206.
- Stanford, Preston Kyle (2006) 'Instrumentalism', in Sahotra Sarkar and Jessica Pfeifer (eds) *The Philosophy of Science: An Encyclopedia*,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400-405.
- Van Doorslaer, Luc (2018) 'Bound to Expand: The Paradigm of Change in Translation Studies', in Helle V. Dam, Matilde Nisbeth Brøgger and Karen Korning Zethsen (eds) *Moving Boundarie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20-230.
- Vandevelde, Pol (2010) 'What Is the Ethics of Interpretation?' in Jeff Malpas and Santiago Zabala (eds) *Consequences of Hermeneutics: Fifty Years after Gadamer's Truth and Method*, Evanston, Illinois: Northwestern UP, 288-305.
- Ventura, Daniela (2012) 'De la conception utilitaire de la langue en traduction [번역에서의 실용적 언어관에 관하여]', *Çédille* 8: 312-330.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ed.) (2004)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2007) 'Adaptation, Translation, Critique', *Journal of Visual Culture* 6(1): 25-43.
- Venuti, Lawrence (2009) 'Traduction, empirisme, éthique [번역, 경험주의, 윤리]', *Revue SEPTET* 2: 71-104.
- Venuti, Lawrence (2010a) 'Translation, Empiricism, Ethics', *Profession* 2010: 72-81.
- Venuti, Lawrence (2010b) 'Ekphrasis, Translation, Critique', *Art in Translation* 2(2): 131-152.

- Venuti, Lawrence (ed.) (2012)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thi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2013)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Venuti, Lawrence (2017) ‘Introduction: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he Humanities’, in Lawrence Venuti (ed.) *Teaching Translation: Programs, Courses, Pedagog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4.
- Venuti, Lawrence (2019)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Venuti, Lawrence (ed.) (2021)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fourth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Yates, Melissa (2019) ‘Instrumental Reason’, in Amy Allen and Eduardo Mendieta (eds) *The Cambridge Habermas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P, 197-199.
- Zelevich, Bernard (1993) ‘The Myth of Translatability: Translation as Interpretation’, in David Jasper (ed.) *Translating Religious Texts: Translation, Transgression and Interpre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22-139.

<온라인 자료>

- “성변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B3%80%ED%99%94>. 2022년 12월 10일 검색.
- “Instrumentalism”, in *OED—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view/Entry/97161?redirectedFrom=instrumentalism&>. 2022년 8월 5일 검색.

[Abstract]

**What Is 'Instrumentalism' in Translation Studies?:  
A Critical Reading of Venuti's *Contra Instrumentalism***

Yeong-Houn Yi  
(Korea University)

Lawrence Venuti, a translation scholar acclaimed for proposing 'domestication' versus 'foreignization' strategies and arguing the need for pursuing 'ethical translation', published in 2019 a book titled *Contra Instrumentalism: A Translation Polemic*. This study is a critical reading of the latest publication of Venuti, a mixture of dramatic and provocative discussions. The first half of the essay delves into the definition of 'instrumentalism' established in translation studies, and then reviews the conventional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over the concept within philosophical and the wider humanities studies. The latter half considers Venuti's *Contra Instrumentalism* as a result of dramatic transformation of his previous theory, a move observed in the introduction to his 2013 book, *Translation Changes Everything*.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s and intrinsic and extrinsic contradictions of the theoretical change and sheds light on critical issues and negative implications raised by Venuti's *Contra Instrumentalism*.

Keywords: Instrumentalism, Lawrence Venuti, Translation Studies, Invariant, Hermeneutic Model of Translation

주제어: 도구주의, 로렌스 베누티, 번역학, 불변소, 해석학적 번역 모델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정교수

erasme@korea.ac.kr

관심 분야: 번역개념사, 번역사회학, 번역비평

논문 투고: 2022년 11월 27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9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12월 18일